

### ‘이 시대 최고의 포교사’

- 3000호 특집 36면 발행

- 정관계 종교, 각계 지도자 축사 A6~8면
- 1~3000호 불교신문을 말한다 A10~13면
  - 불교신문을 이끌어온 사람들
  - 불교신문을 통해 유명해진 이들
  - 지면을 통한 고승들의 사자후
  - 300호 단위로 본 불교신문 발전취
- 현대불교사에서 불교신문의 역할 A17면
- ‘현대 한국종교를 말한다’ A18~19면
  - 각 종교 성직자 · 종교학자 특별좌담
- 기획탐방/ 기형도 시인 ‘서고사를 가다’ A21면
- ⋮
- 지령 3000호 초대석/ 조재래의 문학과 불교신문 B1~3면
- 3000배 수행의 모든 것 B5~7면
  - 성철스님은 왜 3000배를 시켰나
  - 3000배로 건강해진 사람들
  - 홍다영 기자 백련암 3000배 동참기

# 3000

### 11~12일 종단 외국인스님 연수

#### 불국사 석굴암도 순례

한국에서 출가해 전국 사찰에서 정진하고 있는 조계종 소속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경주로 모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이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경주 일대에서 개최하는 외국인스님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스님 연수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책임질 외국인 스님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해외포교를 계획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출신지역별로 나누어 특강과 토론이 진행된다. 미국인 청고스님과 인도

인 헤달스님이 강사로 나서 한국에서 수행자로 산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한다. 이와 함께 교육원 교육국장 가섭스님이 종단 법계 및 승가고시와 연수교육에 대해 안내한다. 또 해외사찰 현황 및 템플스테이, 외국인 상사운영사찰에 대한 소개와 중요무형문화재 연등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경주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해 분황사, 황룡사지 등 불교유적을 돌아본다.

한편 입학식은 오는 11일 오후 1시 경주 신라문화원교육관에서 봉행된다. 참가한 스님들에게는 연수 교육 30점이 부여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 “늘 부처님 가르침만 전할 것입니다”

### 3000호 기념사

불교신문이 지령 3000호를 맞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독자와 만난 지 54년 만에 3000번째 신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 호 한 호를 만들 때마다 이 신문 한 장이 부처님을 만나는 다리라는 심정으로 임했으니, 3000번째 다리를 세운 셈입니다.

〈잡아함〉에 이르기를, 물 속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 씩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 작은 구멍이 뚫린 나무판자 구멍에 머리를 들이치는 일 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처님 법 만나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值)라. 가장 높고 매우 깊은 미묘



자승스님 불교신문 발행인 조계종 총무원장

한 가르침은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겁은 하늘나라 선녀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백년에 한번 씩 사방 40리 나 되는 바위를 스쳐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백천만겁으로

도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으니 우리 불자들은 그처럼 어렵고 헤아릴 수 없는 먼 시간을 지나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까지 만난 분들이니,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감사한 인연입니까.

불교신문은 그처럼 귀하고 어려운 불법과 인연 맺는 역할을 부여받아 쉽게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간 불교신문을 통해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불교신문을 창간하셨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호국불교의 참 정신을 실천하신 청담스님, 수행자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었던 백안스님,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았던 성철스님, 미국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하신 승산스님, 무소유의 삶으로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법정스님, 우리의 허상을 여지없이 꿰뚫으면서도 설악을 스쳐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무산스님 등 이루 말할 없는 선지

식들이 불교신문을 빛나게 했습니다. 고은 김지하 조정래 선생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 또한 불교신문을 빛낸 보석들입니다.

지령 3000호를 맞아 불교신문 발행인으로서 반세기 넘는 긴 시간 동안 불교신문에 할과 방으로써 무지를 일깨워주시고,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시로써 마음을 맑게 해주신 수많은 필자들과 어려울 때 불교신문 한부를 구독해서 용기를 심어주신 독자분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인연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공존과 화합, 지비 실천

불교신문은 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만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같이 있지만 진리의 길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본래 맑고 깨끗하며 그 자체로서 귀한 존재이므로 서로 아

끼고 베풀며 사랑해야한다는 가르침만이 올바른 진리임을 불교신문은 한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쟁이 아닌 공존을, 다툼이 아닌 화합을,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탐욕이 아닌 자비를 말하고 실천하는 신문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신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포교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불국토를 만드는 보살의 공덕을 쌓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다 해도 보살의 원력을 내지 않으면, 이 또한 한줄기 햇살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복을 베푸는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 한량없는 공덕이 함께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합니다.

## “진작 불교를 만났더라면...”

끝없는 질의응답... 방송PD 템플스테이

“20년 가까이 프로그램 제작을 했는데 한국사회 여러 곳을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불교와 스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스스로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KBS 시사제작국 박진법 PD)”

“따뜻한 휴식 같은 여행, 과분한 배려의 느낌,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했다. 다음엔 참선을 실제로 해보는 시간이 마련돼 조금이라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SBS 김종일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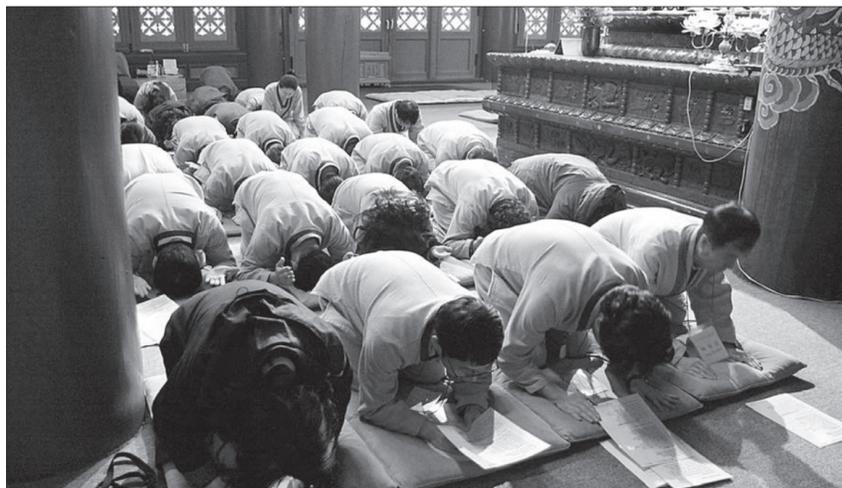
진작 불교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PD 연합회 김광선)”

조계종 문화부(부장 헤일스님)가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제4교구본사 월정사, 상원사 등에서 진행된 ‘제2회 방송 PD초청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소감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템플스테이에는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가운데 PD와 공중파 방송PD, 한국PD연합회 추천회원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 외에도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스님들의 생활과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갔다.

한편 문화부는 방송 미디어 관계자들이 불교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제4교구본사 월정사, 상원사 등에서 진행된 ‘제2회 방송 PD초청 템플스테이’의 한 장면.

### 15년 이타행 ‘연실회’ 저소득층 환우 위해 치료비 보시하며 회향

서울지역 불자들이 구성된 연실회(회장 김길자) 회원들이 1년간 실시한 모인 돈 700만 원을 지난 1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사진> 이번 기금은 연실회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동행에서 매월 진행하



는 나눔사업인 저소득가정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길자 회장은 “연실회는 이번 기부를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모임을 회향하고자 한다”면서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불자 4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실회는 지난 2000년에 결성됐다. 그 동안 매월 회원들이 회비를 건어 동국대 일산병원, 삼성의료원에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추천 받아 정기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 총무원 사회국장 덕은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에 안성 석남사 주지 덕은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덕은스님에게 총무원 사회국



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문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덕은스님은 1994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석남사 주지를 맡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제1회 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4월 16일(수) 13:00~18:00

●장 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

#### ●행사일정

시간	내용
13:00~14:00	참가자 등록
14:00~14:30	개회식
	사회   대오(홍국사 주지)
	개회사
	성법(해암선사문화진흥회 회장)
14:30~16:30	인사말
	원각(해암선사문화진흥회 부회장/전국수좌회 대표)
	기념법어
	진제 법원대중사(대한불교조계종 총정)
16:30~17:30	격려사
	월주(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축사
	대원(해인총림 서당, 학림사 조실)
17:30~19:30	축사
	향적(대한불교조계종 총회의장)
	발표 및 토론
	사회   연기영(동국대 교수)
17:30~19:30	기조발제
	해암선사의 생애와 사상 / 여연(백련사 주지)
	제1주제
	해암선사의 선사상과 수행방법 / 중호(동국대 선행과 교수)
17:30~19:30	제2주제
	불교리더십 형성과 대화중생
	-Max Weber와 신조류리더십이론을 중심으로-
	/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17:30~19:30	종합토론
	사회   윤원철(서울대 교수)
17:30~19:30	기념만찬(동국대 상록원 3층)

만물이 소생하고 온화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에 제10대 종정을 역임하신 해암당(慧菴堂) 성관(性觀)대중사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진흥하기 위한 연구발표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해암선사문화진흥회는 포교·교육·승가복지·사회 복지사업, 장학·문화사업, 효사상 실천사업, 다문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해암선사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우리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마련된 첫번째 행사입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8년 4월 1일

사단법인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합장



●주최 | (사)해암선사문화진흥회

●후원 | 해암대중사문도회

●협찬 | 불교 TV, 불교방송,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미디어벗다,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